

'의료용 대마' 국산 유전자원으로 연구

농진청, 꽃·잎서 추출 칸나비디올 9% 이상 함유 '칸나비디올 고 함유 대마' 등 육성

최근 전 세계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화로 의료용 대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의료용 대마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 연구가 첫 열매를 맺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의료용 대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하고 이 기술로 만든 국산 의료용 대마 식물체 2차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칸나비디올(CBD))을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한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의료

성분의 산업 활용은 불가하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의 기술 표준화와 산업화를 위한 자원이 없어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 도입한 자원을 연구에 활용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국산 의료용 대마 품종 개발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3월 대마 육종에 필요한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대마 자원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암그루에서 수꽃이 피도록 유도해 자가 수정하는 인공교배 기술 ▲암꽃이 피기 전 어린잎(미전개엽)을 조기 분석해 우수 자원을 선별하는 기술 ▲

실내 재배에 일맞은 자원을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이 기술로 의료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을 9% 이상 함유한 '칸나비디올 고 함유 대마(KT 342820)'와 중독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으로 적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저 함유 대마(KT 342821)' 총 2차원을 육성했다.

칸나비디올(CBD)은 대마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성분으로 소아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Epidyolex)의 주성분이며, 해외에서는 염증이나 우울증·불면증 완화 효과가 알려져 있어 식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반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은 진통·진정 효과가 있으나 도취성분으로 중독성이 있어 대마 산업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자원은 섬유용 대마 '청산'과 달리 줄기가 짧고 가지가 많은 특성(단간·다분지형)이 있어 시설 안에서 여러 단으로 재배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한전 전북본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는 지난 17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수준 제고 및 해당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서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설명하고,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등 10개 행위 기준에 대해 강의를 했다. 특히 사익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및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업무처리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높은 수준의 청렴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예비 귀농인 신용보증 교육 큰 호응

농신보 정읍센터, 부안 농기센터서 교육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 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18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귀농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교육을 실시했다.

농신보 정읍센터에서는 정부의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최고 3억7,500만원(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 보증비를 최대 95%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정 금액까지는 위탁금융기관에서 간이신용조사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신보 센터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보증지원으로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귀농에 관심 있는 예비 귀농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신용보증 이용 절차, 보증종류 및 한도 등 보증제도, 보증지원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수시로 질의응답 시간도 거쳐 예비 귀농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로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보증지원 함으로써 농업·농촌 활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청년 외식창업 성공으로

at, 청년키움식당 참가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준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가 운영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청년키움식당)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4주에서 3개월까지 실질적인 외식사업 운영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외식사업은 초기 진입장벽이 낮아 예비창업자들의 비효율적 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높은 편이며, 이를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권분석과 회계세무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 부담 없이 주방시설 등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을 제공해 실질 운영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51개팀 190명이 사업에 참가해 10개팀 18명이 창업에 성공하고, 19명은 외식업체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백작' 팀은 합리적인 가격의 트렌디한 안면육을 전문으로 전분주와 페어링을 시도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흑돼지 불고기 제품을 개발해 청년키움식당에서 상품성을 테스트해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 수료 후에는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했다.

올해 청년키움식당은 ▲홍대점 ▲신촌점 ▲성수점 ▲논현점 ▲분당점 ▲광명점 ▲평택점 ▲대구안성점 ▲구미점 총 9개 운영된다. 참가팀은 각 운영기관별로 모집하며 서류·실기·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모집기간 및 규모, 방식은 운영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청년키움식당 공식블로그(www.bbgnaver.com/atincubating)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팀은 청년키움식당 창업사제집 '나만의 골목식당'을 이루다'를 통해 실제 창업한 우수 20팀의 생생한 인터뷰와 다양한 운영 경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공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제54차 총회'에 참석해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발전사항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LX,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서 "개정 프로젝트 참여할 것"

응용스키마 규칙·스마트시티 도시 객체 처리 등 발표 통해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국내 민간전문가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제54차 총회'에 참석해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발전사항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립대 이지영 교수의 '응용스키마 규칙 국제표준', (주)스프래트 김성근 대표의 '스마트시티에서 도시 객체 처리' 발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공사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권 중 유일하게 공간정보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대면회의에 참석하며 의견 제시 및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표준화의 위상을 보여줬다.

LX공사 조현정 표준품질처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국제 기술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 국제표준화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LX공사가 민간 등 산·학·연과 협업체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국제회의에 참가해 국제협력을 증진과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국가공간정보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중소제조업 54.9% "월간 단위 연장근로 도입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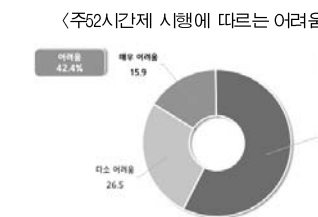
30인 이상 업체 절반 이상

"주52시간제 시행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4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중소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49인(52.2%)과 50~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제일 주된 이유(39.6%)'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시간 주면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그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근로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이 20.9%에 달했다. 또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돼, 유연근무제 활용(23.4%)보다 연장근로 확대에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해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81.8%)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절반(49.1%)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73.3%)가 '항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22.7%), '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에 대응 선호'(17.4%),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16.7%) 순으로 꼽았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응답해, 상위 세 가지 응답항목 모두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체계를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로 나타났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혀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상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일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주행 성능·승차감 '최고'

현대차 '더 뉴 팰리세이드' 오늘부터 판매 돌입



2022 뉴욕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현대차 동차의 플래그십 SUV '더 뉴 팰리세이드'가 고객 맞이 준비를 끝냈다.

현대차는 19일부터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팰리세이드(The new PALISAD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뉴 팰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대형 SUV로서 기존 모델의 혁신적인 공간성은 계승하면서도 ▲위대하고 강인하게 표현된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신규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 등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갖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화질12.3인치 디스플레이 ▲LED헤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열 도어 글라스 이종접합 차음유리를 전 트림에 기

본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주행보조 2(HDA 2) ▲디지털 키2 터치 ▲전동식 스티어링 휠 ▲2열 통풍시트 ▲후방 주차충돌방지 보조(PCAR) ▲1열 릴렉스 시트 ▲3열 열선시트 등 신규 첨단 안전 및 편의사항을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의 만족을 높였다. 또 흡음재 두께 증대를 통해 실내 정숙성을 확보했으며, 충격 흡수 장치 개선으로 고속주행시 진동을 최소화했다.

현대차는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원하는 고객을 고려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에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편의사항을 적용했다. '더 뉴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삼각형 무늬의 파라메트릭 실드와 밝은 크롬 컬러가 더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전용 20인치 휠 ▲캘리 나파카죽 시트 등 디자인을 차별화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강조했다.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가솔린 3.8모델 ▲익스클루시브 3,867만원 ▲프레스티지 4,431만원 ▲캘리그래피 5,069만원, 디젤2.2 모델 ▲익스클루시브 4,014만원 ▲프레스티지 4,578만원 ▲캘리그래피 5,218만원이다. /원주=이종복 기자